



인쇄영업 통해 얻어진 수익금으로 장애인과 독거 노인 돌보며 사는 애헌교회 백충일 목사

쌀쌀한 초겨울의 공기와 더불어 2004년의 겨울을 보내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나 삶의 질은 다양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신체·정신적으로 장애를 겪거나 가족 없이 홀로 황혼의 문턱을 맞이하는 이들이 보내는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스산하게 느껴질 것이다.

더구나 사회·문화·정치·경제 등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국내 여건을 봤을 때 이들이 감수해야 하는 고통은 그 어느 때보다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청첩장이나 각종 현수막 등 소량의 인쇄물들을 직접 수주받아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익으로 불우한 장애인과 독거 노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한 목사의 미담이 은은한 감동을 주고 있다.

현재 의정부시 금오동에서 애헌교

회를 운영하고 있는 백충일(70) 목사가 바로 그 주인공. 연말이 눈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조출한 장소를 택해 만난 그에게서 따스함이 고스란히 묻어 나왔다. 하지만 그 따스함 뒤에는 여러가지 주변 여건으로 인해 삶을 영위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이웃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절박함이 배어 있었다. 의정부 지역 관내에서 '우렁이 목사', '자전거 목사'로 불리는 백 목사를 통해 자신보다는 타인의 입장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의 인생관을 들여다봤다.

인쇄 영업을 통한 포교 활동

1935년생인 그는 전북 김제가 고향으로 전북대학교 농과를 졸업하고 1961년, 김계 농협에 취업해 8년 동안 은행원으로 근무했다. 하지만 그는 안정된 직장보다는 보람된 삶을

찾기 위해 퇴직을 결심하고 상경했다.

그는 서울에서 화장지 제조업부터 일반 기계부품 영업사원까지 안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경험을 쌓았다. 35년전인 1969년, 그는 우연히 접하게 된 마스타기 1대를 운영하며 소량의 인쇄물들을 직접 제작해 납품하는 일을 하게 됐다. 이로 인해 그는 제작이 간단한 소식지 및 월간지 인쇄물을 작업하며 인쇄에 대한 기본적인 공정을 터득하게 됐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에 이르렀을 때 선진 외국 기종들이 앞다투어 국내에 진입할 무렵 그는 인쇄업의 꿈을 접어야 했다. 업체의 부도와 소량 다품종을 대변하는 시대상의 벽이 생각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그 후 그는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신앙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인쇄

업과 신앙이라는 선택의 기로점에 섰을 때의 감회에 대해 그는 “체계적으로 다듬어진 활자에 대한 지식도 중요했지만 인쇄라는 분야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던 시기였다”라고 술회했다. 또한 그는 당시 인쇄업은 상당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던 업종이었다고 귀띔했다. 그만큼 산업 전반적인 구조속에서 인쇄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상당수 존재했고 산업의 중추적인 입지 조건이 확고했었다는 설명이다. 만 50세를 훌쩍 넘기고 늦각이 신앙인으로의 삶을 시작한 1992년, 그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안양(서영 교회)에서 처음으로 목회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 후 3년뒤인 1995년 12월 28일, 현재의 의정부 금오동에 위치한 애헌교회를 설립, 자리를 잡고 본격적인 포교활동에 들어갔다. 지나온 세월에 대해 그는 “어쩌면 그 당시에 힘들었던 일들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해 준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결국 내가 경험해 온 일이 이웃을 돕는 데 일조하는 것이니 결코 헛 인생을 산 것은 아니다”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현재 그는 의정부 관내에서 의뢰가

들어오는 소량 인쇄물들을 직접 납품 받아 울지로 등 거래처를 통해 제작에서 납품 업무까지 전 과정을 소화하고 있다. 올해 만 70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는 그는 “예전에 접했던 인쇄업을 다시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이익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소량의 인쇄물들을 수주받아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익으로
장애인과 독거 노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한 목사의 미담이
은은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의정부에서 우렁이 목사,
자전거 목사로
불리는 백 목사의 인생관을
들여다봤다.**

이익금은 불우한 이웃들에게

그는 일주일에 평균 이틀 정도 울지로를 방문한다. 물론 의정부 지역에서 청첩장 등 인쇄물의 의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다. 현재 그가 한 달에 벌어들이는 인쇄물 수수료에 대한 이익금은 총 100여만원.

또 그 이익금은 현재 ‘장애인 안식의 집’으로 불리는 애헌교회 소속 장애인 및 독거노인 25명에게 전부 환원된다.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이 때문에 그에게 있어 근검절약은 철학이자 삶이 됐다. 이를 실천하고자 그가 유일하게 이용하는 교통 수단은 지하철이 전부다.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적용되는 무임 승차권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제 어느 지역을 방문하건 지하철은 그에게 발이 돼 준다. 최근 지인으로부터 기증받은 소형 봉고차는 단지 ‘그림의 떡’일 뿐이다. 배럴당 50달러가 넘는 고유가 시대에 기름값 등 차량 유지비가 부담스럽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그는 “의정부에서 울지로까지 왕복 3시간이 넘는 거리를 지하철로 다니는데 몸은 힘이 들지만 마음만은 오히려 뿌듯하다”라고 말했다.



▲ 조그만 텃밭에서 생산되는 채소는 이들에게 큰 양식이다.



▲ 현재 중증장애인 4명과 독거노인 21명이 함께 기거하고 있다.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고 그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일 뿐”

그는 또 치아가 약한 연로하신 노인들에게 봉어빵이라도 사갈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한다고 했다. 한 두푼 모인 동전은 돼지 저금통에 매일 출근 도장을 찍고 있다. 이렇게 올 한 해 모은 돈이 벌써 50만원을 넘는다. 이 돈은 겨울철에 모포라도 몇 장 더 있어야 팔다리가 불편한 장애인들과 독거 노인들이 조금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는 설명으로 이어졌다. ‘조금만 더’ 절약하자면 그의 지론은 끝이 없다. 모든 초점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맞춰져 있다. 하지만 그는 곧 이러한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대신 실질적인 도움이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현실의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한 개인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시장 경제의 논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무더기기를 원하지만 후원의 손길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단지 교회에 정기적으로 헌금하고 연말이 되면 정기적인 행사처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는 형식적인 도움이 아니다”라며 “장애인과 독거 노인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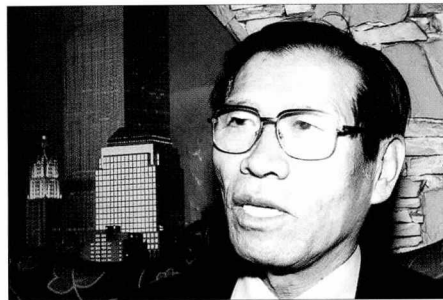
이 현재 어떤 삶을 영위하는 지 정확하게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안식의 집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의회 소속 애헌교회는 그에게 있어 말 그대로 사랑을 봉사하는 휴식처와 같은 존재다. 10년전인 1995년 12월28일, 우사(牛舍)를 개조해 만든 이 교회는 현재 기거할 수 있는 방이 9개다. 이 공간에서 장애인들을 비롯한 독거 노인 25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편안한 삶의 안식처이자 터전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충분한 주거 공간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처음 개조를 시작할 당시만 해도 서너평 남짓한 공간의 방 두개가 전부였다. 하지만 차츰 안식처라는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이들이 늘어나자 그는 기꺼이 부인 이은자(60)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연말이 되면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는 형식적인 도움이 아니다.
편견을 버리고 그들이
현재 어떤 삶을 영위하는 지
정확하게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후원금 보내주실 곳

농협 : 171146-56-023091

예금주 : 백남신

10년전인 1995년 12월28일

우사를 개조해 만든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의회 소속 애헌교회는

현재 기거할 수 있는 방이 9개다.

이 공간에서 장애인들을 비롯한

독거 노인 25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이 곳이 삶의 안식처이자 터전이다.



▲ 지난해 겨울, 인근 군부대에서 대민지원을 받았다.

씨와 함께 교회 인근 주택에서 8만 원짜리 사글세방을 전전하며 생활했다. 그 후 5년뒤인 2000년, 이 부부는 모 방송국에서 방영중이었던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후원금 2천만 원을 지원받아 9개의 주거 공간을 확보한 현재의 안식처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교회 운영에 대해 그는 “예전에 비해 따뜻한 지붕 아래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것으로도 만족한다”라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항상 제게 힘이 돼 준 아내에게 고마울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정신적인 여유로움을 바탕으로 그는 현재 의정부 관내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간단한 이발 및 침술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안식의 집을 운영함에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가장 크게 피부로 다가온다고 강조했다. 바로 복지 정책이 미흡한 국내에서 많은 장벽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그는 현재 을지로에서 인쇄 영업을 하는 것 외에도 성남 소재 한영대학 복지과(04학번)에 재학중이다. 수업은 1주일에 두번 듣는다. 사회 복지

시설 취득에 대한 자격 요건을 보유하기 위해서다. 이는 내년 7월부터 사회복지 법인 기준에 준하지 않음 미 신고 시설은 철거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정부나 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혜택이 없다. 그는 이러한 사회의 불합리한 모순점을 지적하며 “어떠한 조건이 갖춰진 사람만이 남을 도울 수 있다면 외부에 표출된 어려운 사람들만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라며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음지에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더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장기 불황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회의 구조적인 단층을 꼬집으며 “예전에 비해 각종 사회 단체에서의 지원이 부족한 것도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이중 삼중의 고통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이웃과 함께 해 온 길

그에게는 슬하에 자녀가 없다. 목회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주변에 있는 이웃이 바로 가족이 됐다. 걸어온 인생 길에 비해 그의 철학은 간단하

다.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 그리고 그 이웃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싶어하는 것. 단지 그 뿐이다. 또한 그는 “목사는 집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욕심이 있으면 탐욕이 따르고 자신만이 보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목사라는 존재는 단지 대접을 받고 누군가를 신앙의 세계로 이끌어 내는 존재가 아니라 같은 시·공간을 영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70세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겨울철에 내복을 입어 본 적이 없다. 특별한 건강 비결에 대해 그는 항상 재미있는 일만 생각하고 삶에 대해 만족하면 이보다 더 건강한 삶은 없다고 설명했다. 늘 소망을 품고 남을 위해서 살면 기쁨이 오고 엔돌핀 생성으로 이어져 조그마한 고통은 스스로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부연 설명이다.

이러한 생활의 기본 바탕은 신앙인으로서의 가치 척도에서 나온다. 겨울이 다가오고 바람이 거세게 몰아칠수록 마음이 더 무겁다고 그는 말했다. 25명의 중증 장애인들과 독거노인들 때문이다. 자신의 몸이 아파도 걸으로 내색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에게 있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은 일종의 사명감이다.

연말이 다가옴을 확연히 느끼게 해주는 스산한 바람 속에서 그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익숙한 행동으로 안주머니에서 지하철 무임 승차권을 재차 확인한 그는 “신체적으로 고달픈 날도 많지만 나로 인해 불우한 이웃들이 밥 한끼 따뜻하게 식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며 “어찌 됐건 우리는 이 시대를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

(장홍일 기자)